

[큐티 클리닉 4]

QT를 여는 효과적인 준비기도(1)

이상규 목사 / 2001 / 페이지수: 2

어떤 날은 큐티가 참 잘 될 때가 있다. 큐티 본문을 읽자마자 말씀들이 영혼에 깊이 스며들며 놀랄 만큼 새로운 의미들이 깨달아지고 어느새 묵상의 그윽한 자리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날은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그저 인쇄된 글자로만 보일 뿐 지루하고 답답해서 큐티 책을 덮어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마음 받을 옥토로 만드는 준비기도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이다. 요컨대 씨-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전혀 없다.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 밭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매일 아침 '옥토' 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라면 그날 큐티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적용하고 결실하여 흑 백배, 흑 육십 배, 흑 삼십 배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큐티하기 전에 마음 밭을 옥토로 바꾸는 준비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아침마다 준비 기도를 통해 길가와 같이 편견과 고정관념 등으로 완악해진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

또한 마음속의 두려움이나 응어리진 상처의 돌들을 걷어내고 지나친 탐심들과 분주함의 가시덤불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편견과 고정관념, 두려움이나 상처들, 탐심들과 분주함의 뿌리는 다름 아닌 '자기'이기에 '준비기도'의 목표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인 '마음'의 문제이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은 주께서 오늘 무슨 요구를 하시더라도 따르겠다는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이기에 이 준비기도는 이론적 납득만 가지고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깊은 강인 것이다.

조금 긴 인용이지만 다음의 헨리 나웬의 글은 이러한 준비기도의 고뇌를 잘 묘사하고 있다.

준비기도의 고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 이외의 누군가에게 우리 존재의 중심까지 들어오도록 차라리 감추어 두고 싶은 어떤 곳을 볼 수 있고 차라리 건드리지 않은 채

로 두고 싶었을 그 곳을 건드리도록 허용할 수 있는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진정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 내면의 문지방을 넘어와서 무언가를 보고 건드리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우리의 가장 내밀한 삶이 구체화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위험하며 방어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저항은 꼭 왼 주먹의 저항과 비슷합니다. 움켜 쥔 주먹의 이미지는 긴장 상태, 자신에게 단단히 집착하려는 욕구, 두려움을 피하려는 갈망을 나타내지요”(헨리 나웬의 ‘열린 손으로’중에서)

*** 출처 : 은누리신문 (큐티와 일대일)**